

II. 강릉단오제의 유래와 관련설화

강릉단오제는 강원도 강릉지방에서 매년 음력 5월 단오 날에 거행하는 향토신제(鄕土神祭)이다.

대관령산신(大關嶺山神)과 대관령국사성황신(大關嶺國師城隍神)을 제사하는 강릉단오제는 대관령의 험준한 행로의 안전과 생업의 풍요, 그리고 마을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을 기원하는 제의(祭儀)이자 축제로, 현존하는 향토신제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이 제의는 음력 3월 20일 신주(神酒)를 빚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5월 6일(八端午) 소제(燒祭)를 하고 신을 봉송하는 데까지 장장 오십일만에 걸친 대대적인 행사로 이어진다.

본격적인 제의는 음력 5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단오굿과 관노가면극(官奴假面劇)을 중심으로 그네·씨름·줄다리기·웃놀이·궁도 등 각종 민속놀이와 기념행사가 벌어진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영동 일대는 물론 각지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강릉시는 온통 축제분위기를 이룬다.

1. 단오제의 역사

강릉단오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그 역사와 제의의 모습을 짐작케 해주는 몇몇 기록이 전하고 있다. 강릉단오제에 관한 문헌적 증거는 조선시대 성종 때의 문신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이 엮은 한문수필집 『추강냉화(秋江冷話)』에도 기록이 나타나지만, 경종(景宗, 1720~1724) 때 간행된 『강릉지(江陵誌)』에 의하면, 그 역사가 고려시대 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추강냉화』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영동 민속에는 매양 3·4·5월 중에 택일을 하여 무당과 함께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있다. 부자는 음식을 말에 신고, 가난한 자는 음식을 머리에 이고 가서, 귀신석에 제물을 진설한다. 연 3일 생황을 불고 북을 치고 비파를 뜯으며 놀다가, 취하고 배부른 연후에 산에서 내려온다.

이 기록은 반드시 강릉단오제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영동 민속을 가리키고 있으나, 그 시기 중 5월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의식이 대관령서낭제의 진행과 흡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강릉단오제를 추정케 한다.

허균(許筠, 1569~1618)의 시문집인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1613) 권 14 문부(文部) 11 「대관령신찬병서(大關嶺神贊并書)」에 의하면, 저자가 계묘년 여름 강릉에 가서 단오제를 구경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계묘년 여름 내가 명주(강릉)에 있을 때, 명주 사람들이 5월의 길일을 택해서 대관령산신을 맞이하러 갔다. 내가 이숙(吏屬)에게 물으니, 이숙이 “그신은 다름 아닌 신라대장군 김유신(金庾信)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공은 어렸을 때 명주에서 유학했고, 산신에게서 검술을 배웠고, 명주 남쪽에 있는 선지사(禪智寺)에서 검을 만들었다. 이 검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제를 평정했다. 죽어서 대관령의 산신이 되었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영검이 있었다. 고로 명주 사람들은 매년 5월 초 길일에 제사를 지낸다.

허균의 출생이 선조2년(1569)기사생(己巳生)임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계묘년은 그의 나이 35세 때인 선조36년이 된다. 따라서 위의 기록이 지금으로부터 390여년 전인 것으로 보아, 강릉단오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성대한 향토제로서 전승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종 때 간행된 『강릉지』는 작자 미상인 향토지 『임영지(臨瀛誌)』를 취사(取捨)해서 만든 것으로, 권2 풍속조(風俗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왕순식이 고려 태조를 따라서 남쪽을 정벌할 때, 꿈에 승(僧)과 속인(俗人) 두 신이 병사들이 끌고 와서 구해 주었다. 문득 깨어보니 싸움에 이겼다. 고로 대관령에 사우(祠宇)를 지어 치제(致祭)케 하였다.

위 기록에는 이미 고려 태조 때 대관령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대관령산신과 관련된 제사의 역사는 거의 천여년 전까지 소급될 수 있는 것이다.

2. 단오제의 관련설화

강릉단오제의 유래를 알려주는 것으로 대관령산신으로 모시고 있는 김유신장군에 대한 설화와 대관령국사서낭신인 범일국사(梵日國師)에 대한 설화가 있다. 그리고 후대로 내려와 국사서낭신과 부부신이 된 국사여서낭신에 대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1) 김유신장군신설화

신라장군 김유신은 어렸을 때 명주(溟州)에 유학하여 대관령산신(오대산 산신이라고도 함)에게 검술을 배웠다. 그는 강릉의 남쪽에 있는 선지사(禪智寺)에서 명검을 만들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사후(死後)에 대관령의 산신이 되어 이 지방을 보호해 주었고 임진왜란 때는 대관령과 송정(松亭)의 모든 소나무를 군사로 보이게 하여 왜군이 근접치 못하게 하였다.

2) 범일국사신설화

강릉에서 남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명주군 구정면 학산리(溟州郡 邱井面 鶴山里)에는 범일국사와 관련된 학바위[鶴岩]·석천(石泉)·굴산사지(山寺址) 등의 유적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학산마을의 대가집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아침 일찍이 굴산사 앞에 있는 샘[石泉]에 가서 물을 뜨니 바가지 속에 해가 떠 있었다. 처녀는 여러 차례 물을 떠도 여전히 해가 바가지에 떠 있어 이상하게 여기면서 물을 마셨다.

그런 일이 있던 후 처녀의 몸에는 태기가 있었고, 달이 차자 옥동자를 낳았다. 그러나, 처녀가 아비 없는 아이를 낳은 지라 망발이라 하여 집 안에서 몰래 그 아기를 숨에 싸서 뒷산 학바위 밑에 버렸다.

아기를 버린 산모는 밤을 뜯눈으로 지새고, 아침 일찍 모정(母情)에 못이겨 아기를 버린 학바위를 찾아갔다. 그런데 이미 죽었거나 산짐승이 물어간 줄로만 알았던 아기는 뜻밖에도 학들이 빨강고작은 구슬알을 아기 입에 넣어 주며, 날개로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늘이 접지해 주신 아이라 믿고 데려와 키우니 자라면서 비범

하였다. 당시의 서울인 경주로 보내 공부를 시켰다. 소년은 열심히 수학하여 마침내 국사(國師)가 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중국에까지 떨쳐었다.

범일국사는 강릉에 살았는데, 난리가났을 때 대관령에서 술법을 써서 적을 격퇴시켰고, 불법을 전 파시키고 고향을 지키는 그는 죽어서 대관령의 서낭신이 되었다 한다.

후에 범일국사는 고향인 학산에 돌아와 자기의 지팡이를 던져 꽃힌 곳에 절을 지어 심복사(尋福寺, 또는 神福寺)라 불렀다. 현재 그의 유골을 안치한 부도(浮屠)와 함께 터만 남아 있는 굴산사(山寺)도 그가 창건한 절이다.

세간에 범일국사를 뜰 범(泛)자, 해 일(日)자로 쓰기도 하는데, 이는 해가 뜬 물을 마시고 태어났다는 데서 연유된 것이고, 원명은 범일(梵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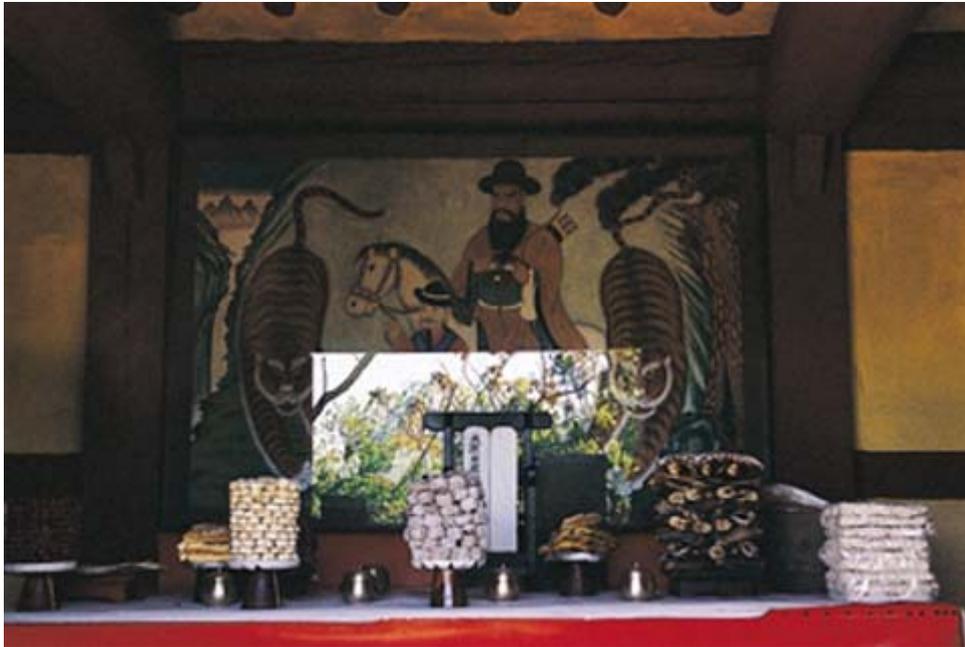


사진 3. 국사성황사에 그려진 국사성황신 신도(神圖)



사진 4. 대관령국사성황신인 범일국사의 어머니가 마시고 그를 낳았다고 전하는 학산리의 석천(石泉)



사진 5. 학바위

3) 대관령국사여서낭신 설화

국사여서낭당은 옛날에는 강릉시 남문동(南門洞)에 있었으나, 현재는 홍제동(洪濟洞)에 자리 잡고 있다. 단오제 때 대관령국사여서낭당에서 국사서낭을 모셔다가 이곳국사여서낭과 합사(合祠)를 시키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류교혼(異類交婚) 설화가 전한다.

옛날 강릉에 살고 있는 정씨 집에 나이 찬 딸이 있었다. 하루는 정씨 부부의 꿈에 대관령서낭신이나 나타나 그들의 고명딸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강청(強請)했다. 그들 부부는 신에게는 딸을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씨 집 딸이 꿈에 단장하고 마루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처녀를 업고 달아났다. 처녀를 업고 간 호랑이는 산신이 보낸 사자였다. 서낭신은 그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딸을 잃은 정씨 부부는 당황하여 대관령국사서낭당으로 찾아갔다. 가보니 처녀는 서낭과 함께서 있었는데, 이미 죽어서 혼은 없고 몸만 비석처럼 서 있었다. 정씨는 하는 수 없이 화공을 불러 딸의 화상을 그려서 붙이니, 처녀의 몸이 비로소 떨어졌다.

호랑이가 소녀를 업고 가서 대관령서낭과 혼배 한 날이 음력 4월 15일이므로, 지금도 이날 대관령에 가서 국사서낭을 홍제동에 있는 국사여서낭당에 모셔다가 두 분이 함께 있도록 합사시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사진 6. 대관령국사성황신인 범일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학산리의 굴산사지의 부도(浮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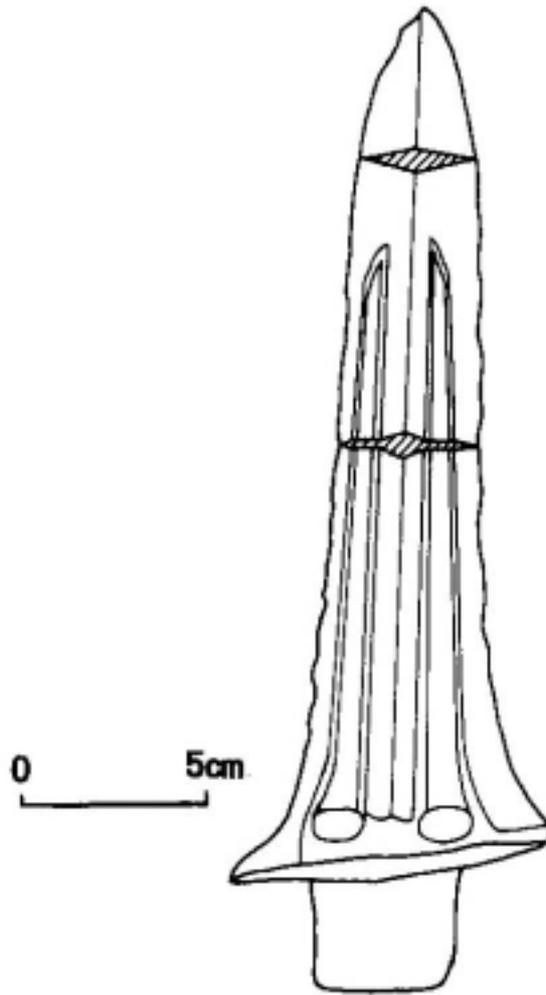


사진7. 학산리 굴산사지의 부도탑

이와 같이 강릉단오제 때 모시는 신들에 관한 근원설화는 이 고장 강릉과 관련된 인물이기도 하고, 주인공의 출생지가 학산리 학바위 근방이요, 지금도 남아 있는 그 학바위와 석천을 구체적 증거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세설화는 신화적이면서도 전설적인 양식을 띠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구체적 시간, 곧 어느 대왕 시절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과 학바위 속에서 학이 주는 구슬 때문에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점은 신성한 장소를 제시한 신화적인 사고(思考)와 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화가 마을의 신화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유신이 실존했던 인물이고, 범일국사 역시 810년[현덕왕 2]~889년[진성여왕 3]경에 강릉지방에서 살았던 실존 인물이기 때문이다. 범일국사와 김유신장군을 신격으로 올려놓은 이들 설화야말로 전설이 신화로 승화·정착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사진 8. 대관령국사여성황신을 모시고 있는 대관령국사여성황사



사진 9. 대관령국사여성황사 내부의 신도와 위패

3. 강릉단오제의 주신(主神)

강릉단오제 때 대성황사(大城隍祠: 현재 KBS 강릉방송국 자리에 있었다고 함)에서 모셨던 신은 주로 신라시대의 인물들로 김유신장군신 · 범일국사신 · 김이사부장군신 · 창해역사신 · 초

당리부인신·연화부인신 등 대개 강릉출신이거나 강릉 사회 내지는 강원도를 위해 봉사한 인격신들이다. 김유신장군신은 처음에 강릉시 서쪽에 있는 성황사에서 받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김유신사당인 화부산사(花浮山祠)에서 김해 김씨들이 매년 단오 날 제를 지내고 있다. 예국(濊國)에서 10월에 지내던 무풍속(巫風俗)이 신라·고려·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김유신장군을 모시는 단오절풍속으로 변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신라시대에는 단오제를 궁중에서도 중요시했고, 고려에 들어오면서 예종(睿宗)이나 윤관(尹瓘)장군도 김유신을 지극히 숭배했으므로 단오제의 주격신은 김유신장군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문헌으로 확인하더라도 허균의 『성소부부고』에서 처음으로 김유신장군이 산신임을 언급하고 있다. 범일국사가 서낭신이라는 기록은 어느 문헌에도 없다. 또 범일이 신라시대의 범일국사인 것으로 믿고 있는 상태이다. 연대적으로 보아도 범일은 김유신보다는 후대의 인물이니, 김유신장군의 심격설이 먼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범일은 명주군 학산지방의 실존인물이었기에 고려시대 불교 숭배사상이 팽배했을 때 신격의 자리를 얻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런데 김유신이 명주(溟州: 지금의 강릉)에 유학한 일이 있고 대관령산신에게서 검술을 배웠으며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대관령산신은 김유신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자연신(自然神)을 지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자연신으로서의 산신이 인격신(人繫神)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단종(端宗)이 죽은 뒤 태백산산신이 되었다는 설화에서도 입증된다. 따라서 대관령산신으로 간주되는 것은 김유신이다.

또한 앞에서 인용한 『강릉지』의 『승(僧)과 속인(俗人) 두 신이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구해주었다』는 기록에서 그 두 사람, 즉 승과 속인이 병사를 이끌 만한 지도력이 있는 인물로 산신도 두 분이어야 하겠으나, 현재는 두 분이라는 증거가 없어 다만 위패에 대관령산신지위(大關嶺山神之位)라 하여 한 분만 모시고 있다.

서낭신과 산신을 같은 위치에 놓는다면, 이때의 승속이신(僧俗二神)은 승이 범일국사를 말하는 것이고, 속은 산신인 김유신이 되어야 들어맞는다. 대관령산신이 김유신이란 사실은 이미 『성소부부고』에도 밝혀져 있다.

현재도 강릉 단오제 때가 되면 화부산사에서 김해 김씨 종친회가 주관하여 지내는 김유신장군의 제사를 살펴보니, 산신으로 모신 기원을 살펴보아도 김유신장군이 더 오랜 신격(神格)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허균이 생존했던 광해군 당시는 범일국사보다 김유신장군의 신화적 비중이 더 컸던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보게 된다. 그 이유는 만일 국사서낭신인 범일국사의 비중이 더 컸더라면 왜 『성소부부고』에는 그에 관한 언급이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고려 예종 당시만 하더라도 김유신장군에 대한 숭배사상이 대단했다. 예종 자신은 물론 윤관장군도 김유신을 흠모하고 숭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으로 본다면 고려 때만 해도 김유신을 섬기는 유풍이 강했으나 점점 후대로 내려오면서 범일국사신도 신화에 편입되어 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진 10. 단오날 난장에서 점심을 먹고있는 할머니들



사진 11. 단오날 그네 뛰는 모습

4. 난장(亂場)

강릉단오제가 축제의 기능을 더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 의례뿐만 아니라 단오제 기간 동안 펼쳐지는 난장과 여러 민속놀이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강릉 남대천 백사장에 길게 펼쳐진 난장은 이제 단오제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강릉단오제의 난장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풍경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참가자수가 100만 명을 헤아리는(1994, 강릉시 문화예술과 집계 103만) 거대한 축제의 공간에 난장의 요소가 지니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난장에는 밥장수·술장수·떡장수·엿장수 등 온갖 먹거리를 비롯해서 옷이나 이불·모자·운동화·악세사리·인형·우산 등 각종 잡화가 쌓여 있고 거기에서 커스와 같은 상업적인 공연물과 뽕장수·약장수·고리던지기·장난감 총 쏘기 등 사행성과 도박성이 짙은 장사꾼까지 모여들어 수십만 인파가 북적댄다.

단오제의 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활발히 검토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강릉단오제는 집단적 종교의식이 강한 제의 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대한 난장의 형성으로 축제가 지닌 기능을 톡톡히 하여 주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난장은 축제가 지닌 열린 공간으로서의 가능과 경제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



사진 12. 남대천변에 자리잡고 있는 난장



사진 13. 난장을 찾아온 사람들